



# 창간을 축하합니다 | A18 전면광고

과거, 현재, 미래의 것 모두 놓아 버려라. 윤회의 바다 건너 피안에 올라서는 때 그대 마음 온전히 해탈하리니 두 번 다시 생사의 흐름에 들지 않으리 - 법구경



##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 종 정 범 담 정 각

원로부의장 명종	원 로 간 사 법운		
원 로 의 원 청송 유공	도기 지공 미산 법현		
총 무 원 장 호월 화엄	종 회 의 장 원경 삼주		
호 계 원 장 용암	포 교 원 장 진공	감 사 원 장 해동	선거관리위원장 보월
총무원부위원장 상원			
총 무 부 장 광은	교 무 부 장 법광	재 무 부 장 동해	규 정 부 장 정원
포 교 부 장 지현	홍 보 부 장 일성		
재실채널총회장 광명심	봉사위원장 청정심	조직위원장 문상철	사 업 부 장 김유광
사 회 국 장 보성			
경기남부총무위원장 일성	경기북부총무위원장 지산	경북교구총무위원장 해동	전남교구총무위원장 지현
전북교구총무위원장 성각	충청교구총무위원장 상원	제주교구총무위원장 대성	대전교구총무위원장 정원
부산교구총무위원장 정일	울산교구총무위원장 지운	대구교구총무위원장 보각	

### ◆ 입 종 안 내 ◆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초대 세계법왕 일봉 서경보 존자님의 유훈을 계승하여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큰 발원으로 일봉존자의 수법제자이시며 제)일봉선교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범담 정각 대종사님을 초대종정으로 모시고 지난 7월 24일 『창종선포대법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지면을 빌어 본 종의 창종에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원근각지의 청정승가와 불자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열린종단 · 교육 · 수행종단 · 개혁과 혁신의 종단』을 표방하는 본 종단에서는 “일봉”의 큰 그늘아래 하나 되고자 하는 일봉문도와 일봉존자와 소중히 인연된 청정승가, 법사, 재가불자님들께 언제나 입종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사오니 함께하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불기2556년 10월 17일

(사)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호월 화엄

종 정 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 1동 323~194 미룡사. 051)404~4300  
총 무 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2층)  
전화 041)566-2277, 566-2278 / 전송 041)566-6141

## (사)대 한 불 교 본 조 계 종



원로위원 용 담. 혜 암. 지 연  
종 정 회 암  
사서실장 용 광

총무원장 용호	수석부원장 산수				
고시원장 혜공	법규원장 혜산	중앙선원장 보륜	감사원장 정민		
법사원장 마생	복지원장 진묵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법향		
중앙총회회장 대호	부회장 청오				
중앙총회의원 묘건. 대공. 혜철. 중무. 혜운. 법묵. 현덕. 정주. 법향.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여진					
총무부장 성공	재무부장 고운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도문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법장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보광	포교부장 철유	교육부장 자운
서울교구총무위원장 청담	경기교구총무위원장 법묵	대전교구총무위원장 혜철	강원교구총무위원장 보륜		
부산교구총무위원장 대안	대구교구총무위원장 중무	경북교구총무위원장 무진	전남교구총무위원장 독성		
충남교구총무위원장 여진	경남교구총무위원장 경덕	전북교구총무위원장 보명			
고문변호사 이종일.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스님		

서울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제 76호 전화 02)3436-0796~7 팩스 02)2201-1163

##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타종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 총무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5호 전화 02)2242-1049 . 011-9090-1049

## (사) 현대불교조계종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 총무원 : 대전 동구 가오동 293-1 보광사 / 총무원장 · 주지 동화 전화 042)283-5896 / 011-769-0300